

# Hanguel Teletype and Telex Terminals in 1970s

Kishik Lee 이기식

2015.4.22/4.30

1970년초에(컴퓨터 도입의 초창기로서 ‘과도기’로 표현해도 좋겠음), 다음과 같은 기기를 **Computer terminal** 로서 대체 이용하는 예도 있었음. Time sharing system, On-line system, Interactive Terminal, Distributed Data system 등의 시대였음.

## 1. TELETYPE(TTY), dedicated line(전용선) 통신용, 한글 keyboard있음.

당시 세계통신의 통신기기의 총아.

- 미국 Teletype co., 에서 제작 판매.

M33, M34 : 국내통신시장에서 주로 사용한 5-bit(Baud code)기기

M35이상 series는 8-bit(ASCII)임(TTY-compatible, EIA-RS232C) 시작

\* 당시 KIST에서 M45기종 15대 도입하여, Maker-dependent terminal 체재에서 벗어남(brochure의 TTY terminal, 1972)

## 2. TELEX (TLX), network 통신, 한글 keyboard있음.

‘국제적 numbering system’ 에 의해, 각 TELETYPE에 번호를 부여하여, 교환대에서 통신교환을 해주어, 세계무역에 지대한 공헌.

- 5-bit 통신기기로 국내는 ‘SIEMENS’ 제품이 주종을 이룸

- 세계적인 Time sharing service center에서 TLX network에 가입하여, TLX용 통신port를 제공하였음.

\* 1972년, KIST에서 ‘conversion soft’에 의한 TLX port 제공.

## 3. IBM Ball-type typewriter.

현재, computer system 에서 사용하는 character font를 font 별로 금속 ‘ball’ 로 제공하여, 필요 할때 replace하여 사용하는 typewriter. 컴퓨터실의 console, 또는 고급 ‘Word processor’(미국등)로 많이 사용됨. 상대적으로 고가임.

자료

[이 1972] 이기식, Terminal (단말장치), KIST 전자계산소, 1972.